

200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⑤	5	③
6	②	7	⑤	8	④	9	④	10	④
11	④	12	④	13	⑤	14	②	15	③
16	⑤	17	①	18	③	19	①	20	②
21	④	22	③	23	②	24	①	25	①
26	④	27	③	28	⑤	29	⑤	30	③
31	④	32	②	33	③	34	⑤	35	①
36	①	37	④	38	②	39	④	40	④
41	⑤	42	⑤	43	①	44	⑤	45	①
46	②	47	③	48	③	49	③	50	①
51	⑤	52	⑤	53	③	54	②	55	③
56	③	57	②	58	④	59	①	60	②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강연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본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기계나 공장 설비와 같은 물질 자본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간적 자질을 중시하면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이 자본 개념의 핵심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인적 자본은 개인 각자가 갖는 지식이나 성실성 등 개인적 자질에 의한 경쟁력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의 결합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결합을 매개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부터 살펴볼까요?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 춘추시대 때 얘기입니다. 제나라가 노나라에 이겨서 노나라 땅을 넘겨받는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나라의 조말이라는 사람이 단 위로 뛰어올라가 제나라 환공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며 “그 땅을 빼앗으면 우리 노나라는 굶어 죽는다. 땅을 빼앗지 않겠다고 공약하라.”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환공은 그러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말이 단에서 내려오자 환공은 그를 잡아들이고, 협박에 의한 약속은 무효임을 선언하려 했습니다. 그때 참모인 관중이 나서서 조언했습니다. “비록 협박에 의한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키면 제후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러면 천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환공은 관중의 말에 따랐습니다. 폐기할 수도 있는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후들이 환공을 중심으로 뭉쳤고 이로써 환공은 춘추시대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1. [출제 의도] 맥락에 맞게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강사는 사회적 자본은 결합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일화에서 제나라의 환공이 실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폐기할 수도 있는 약속’을 지켜 냈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써 제후들의 ‘신임’을 얻게 되어 제후들이 환공을 중심으로 뭉쳤던 것이다.

[2]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1(앵커) : 누리꾼들의 공공연한 음악 파일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이 사법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기자) :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만 4천여 명이 무더기로 고소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 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파일 등을 내려받아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음악 감상 등 개인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검찰은 이 경우,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렸지만,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일단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남자2 :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사용까지 막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자(기자) : 하지만 음반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반 관계자의 말입니다.

남자3 : 누리꾼들이 검찰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저작권 침해는 늘어날 겁니다.

여자(기자) : 누리꾼들이 집단 고소에 휘말리게 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풍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반 관계자와 누리꾼들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제 의도] 들려준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검찰은 이 경우,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여자 기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범의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이번에는 미술 수업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교사) : 오늘은 <설어도>라는 그림을 감상해 보고, 좋은 그림이란 어떤 것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낚싯대를 들고 홀로 서 있군요.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네요. 산수화에서 흔히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찾을 수 없고, 눈 쌓인 대나무만 그려져 있어요.

남학생1 : 선생님, 그런데 그 그림은 언제 누가 그린 건가요?

여자(교사) : 누가 그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작품이 그려진 시기가 중국 역사에서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였던 오대 때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왕조가 빈번히 교체되고, 제왕들은 탐욕스럽고 어리석었던 시기였죠.

남학생2 : 그림 그 그림 속 인물이나 대나무는 그런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자(교사) : 음…… 그림 속 인물을 보세요. 넓은 소매에 긴 옷도리를 입고 있는 선비가 낚싯대를 들고 홀로 서 있는데, 이건 속세의 선비 모습은 아니지요. 그리고 선비 주변에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가 의도했던 것은 뭘까요? (사이)

남학생2 : 아, 알겠어요. 그 그림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풍자한 것 아닌가요? 주변의 황량한 풍경은 당시의 정치 현실을 나타내고, 대나무는 의로운 선비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옛날 선비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 속에 들어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여자(교사) : 맞아요. 이 그림의 생명력은 바로 작가가 시대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화폭에 담아내려고 한 정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은 알 수 없어도 오늘날에도 이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어도>의 경우를 볼 때, 좋은 그림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자, 이제 학생들의 답변을 들려드립니다.

첫째 학생(남)의 말입니다.> 시대를 규정짓는 독특한 사상적 흐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여)의 말입니다.> 시대에 대한 작가의 성찰과 의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남)의 말입니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야 해요.

넷째 학생(여)의 말입니다.> 작가의 개인적 삶과 사회 현실이 조화를 이룬 것이어야 해요.

다섯째 학생(남)의 말입니다.> 창작 당시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것이어야죠.

3.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사의 마지막 발언을 보면 ‘작가가 시대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화폭에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좋은 그림은 시대에 대한 고민, 즉 시대에 대한 성찰과 의식이 담겨 있어야 한다.

[4]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화석 연료가 고갈되어 감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대담자 :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석 연료가 고갈된다고 해서 석유를 사용하기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담자 :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투자된 돈은 약 3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 진행 속도로 보아, 2016년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비율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입니까?

대담자 : 무엇보다 이를 실용화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연료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토양 이탈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실용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오늘날 연료 전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의 경우, 연료 전지를 만들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4.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담자의 두 번째 발언에 따르면 10년 후인 2016년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비율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 안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대체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5~6]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8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육상 경기 기록은 날씨가 달리기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애틀랜타는 섭씨 38도가 넘는 기온에 습도도 50퍼센트가 넘었지요. 달리기를 하기엔 참으로 힘든 날씨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 기록은 저조했던 반면 단거리 경기에서는 두 개의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후

조건에서 두 육상 종목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포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거리 달리기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것이 기록 경신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면 마라톤과 같은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높은 기온이 오히려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마라톤 경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기온은 섭씨 13도인데, 이보다 기온이 1도 높아지면 기록은 3분 30초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라톤의 경우에는 섭씨 13도가 최적 기온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기온은 섭씨 15도에서 20도의 범위라고 봅니다. 섭씨 26도가 넘는 날씨에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온 못지않게 달리기 경기의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공기의 저항 또한 높아집니다. 공기의 저항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수가 달릴 때 그 만큼 힘이 더 든다는 것이지요. 마라톤의 경우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달려야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마라톤을 한다면 높은 습도 때문에 기록이 저하될 소지가 큰 것이지요. 더운 날씨에 습도마저 높게 되면 마라톤 선수의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방법은 대회 당일의 기상 상태에 맞추어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신체를 날씨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의지만을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분석과 훈련이 뒷받침될 때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라톤에서 날씨에 과학과 예측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출제 의도] 강연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에서는 섭씨 26도가 넘는 날씨에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즉 체온의 항상성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도'와 관련지은 ③은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다.

6. [출제 의도] 강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말하기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온도'와 '습도'가 마라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포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강연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연의 첫부분에서 애틀란타 올림픽의 육상 경기 결과를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7. [출제 의도] 그림을 보며 연상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㉔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연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그림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8. [출제 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한 광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기>의 대구·대조의 표현법을 잘 살려 표현한 답지를 찾으면 된다. ④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편견을 가지면 장애가 보인다 ↔ 편견을 버리면 능력이 보인다'로 대조와 대구의 표현을 잘 살리고 있다.

9. [출제 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계획을 구상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그림을 보고 올바른 독서 방법을 모색하면 꾸준히 책을 읽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잘못된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책을 읽는 잘못된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고 한 ㉔는 (가)의 자료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10. [출제 의도] 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끌어낸 논지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부 기관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으므로 문제 해결 방안 역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④의 내용은 제시한 자료의 내용이나 글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11. [출제 의도]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 및 자료 제시 방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㉔의 경우, 'II-2'의 항목을 보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미디어 교육의 장애 요소라고 하였으므로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㉔에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항목을 제시하였으므로 'II-2'의 항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2. [출제 의도] 어법에 맞게 글을 바르게 고쳤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약속조차라도'는 문맥상 부적절하여 '약속마저도'로 고쳤지만 이 역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약속조차라도'를 '약속이라도'로 고쳐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참고로 '이라도'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풀이] ⑤ '바뀌다'는 주로 '~이/가 바뀌다. ~로 바뀌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다. 반면 '바꾸다'는 '~을 바꾸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문맥상 '바꾸어'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13. [출제 의도] 어휘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독선'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을 뜻하고, '독단'은 '남과 상의하지도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을 뜻한다. 따라서 ⑤의 문맥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혼자서 일을 처리했다'고 했으므로 '독단'이 문맥에 어울린다.

[오답풀이] ①의 '변경'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의 뜻이고, '변형'은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 또는 그 달라진 형태'의 뜻이다. ②의 '발견'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의 뜻이고, '발굴'은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냄. 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히려 함'의 뜻이다. ③의 '부응'은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함'의 뜻이고, '호응'은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따위에 대답하거나 응함'의 뜻이다. ④의 '동조'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을 뜻하고, '방조'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14.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제5항-3의 규정에 의하면,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갑짜기'가 아니라 '갑자기'로 표기한다. 그런데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살작'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살짝'을 '살작'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평가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15~20] (가) 김광균, 「철야」

(나) 서정주, 「신록」

(다) 작자 미상, 「동동」

15.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에는 꽃이 지고 녹음이 돋는 계절이 '또 한번' 돌아왔다고 하여 끊임없이 순환되는 자연 질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배경으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회가 표현되어 있다. ㉔는 월령체 형식의 노래로, 월을 단위로 순환되는 자연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 화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16. [출제 의도]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불꽃은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등불은 불꽃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불꽃이 지니는 몽상적 이미지와 관련된다. 작품의 흐름을 보면 시적 화자는 한밤 중 내리는 눈을 보며 자신만의 '몽상'(생각)에 빠져 들어 '잃어진 추억'을 되살리게 된다. 이로 미루어 시적 화자가 마음에 켜는 등불은 시적 화자가 마음 속, 즉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이할꺼나'를 의문형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마음속 깊은 정회를 드러낸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어이할꺼나', '아-', '-어라' 등의 표현에서 시적 화자는 마음속 깊은 정회를 드러내고 있다. ③ '펼펼펼 펼펼펼'에서 의태어가 반복 사용되어 뜻의 떨어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붉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꽃잎'에 대한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⑤ 1연과 마지막 연에서 시구가 반복·변주되고 있다.

18. [출제 의도] 관련 되는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시적 화자는 '남'을 만나고 싶은데 '남'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대립된 욕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④ ㉔의 ㉔에서 시적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만 있지만 <보기>의 시적 화자는 강가에 나가 '남'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보기>에는 '남'이라는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 행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출제 의도] 조건에 맞게 시를 창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시적 화자는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구나'라며 떠난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㉔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유사하다. '복사꽃'은 '그대'와 대조되면서 '그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㉔의 '꽃고리새'와 시적 기능이 유사하다. 또 '그대와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빛났'던 작년과 '복사꽃은 여전'하지만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는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는 시적 화자가 그리운 대상(내 살던 곳)을 떠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㉔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다르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20. [출제 의도] 시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내리는 눈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㉔에서 서러운 몸짓을 하는 대상은 '꽃잎'인데 이는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진 시적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것이다. ㉔에서는 우는 '피꼬리'와 그렇지 못한 시적

화자가 비교되면서 시적 화자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㉔에서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닌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㉕의 경우 대립된 시어의 병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21~25]

21. [출제 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로렌츠의 말을 도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 : 살상 능력이 크고 억제 메커니즘이 있음 → [B]
 ·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 : 살상 능력이 미약하고 억제 메커니즘이 없음 → [C]
 ·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인간 : 살상 능력이 미약하고 억제 메커니즘이 없음 → [C]
 · 기술이 발달한 이후의 인간 : 살상 능력은 크나 억제 메커니즘이 없음 → [A]
 · 일반적인 진화의 과정 : 살상 능력이 크면 억제 메커니즘이 있음([B] 부분), 살상 능력이 미약하면 억제 메커니즘이 없음([C] 부분)
 따라서 [D]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2. [출제 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간이 인간을 대량 살육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로렌츠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23.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로렌츠의 이론을 소개한 글이다. 본문에 따르면 로렌츠는 조건화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와는 달리 공격성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본다. ㉔의 경우는 공격성의 원천을 사회적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공격성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는 이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의견임을 알 수 있다.

24. [출제 의도] 뒷받침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치명적인 이빨이나 발톱을 가진 동물들은 살상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치명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억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늑대가 복종 의사를 표현한 다른 늑대를 물어서 죽이지는 않는다는 ㉑이다.

25. [출제 의도] 단어의 의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소형차’는 ‘소형+차’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기+장치’의 의미 구조를 지닌 것으로 ‘기능+장치’의 의미 구조가 아니다.

[26~29]

26.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첫 문장과 (나)의 셋째 문장을 종합하면 다수결은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의사 결정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시장적 의사 결정은 (나)의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이로 미루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다수결 방식이 아니라 시장적 의사 결정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 의도] 글의 전개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를 원론적으로 규명한 뒤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와 (다)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차이점을 의사 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라)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 즉 (나)~(라)는 차이점과 공통점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올바른 관계 정립 필요성을 규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의 성격은, 두 방식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결론 암시 단락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28.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마)에서나 <보기>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떠한지 하는가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더구나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요건으로 글쓴이가 (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인데, <보기>에서는 오히려 정부(정책 결정자)의 부정적인 역할로 인해 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사례가 나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㉕와 같이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마)와 <보기>의 내용과 상반된 해석으로 볼 여지가 많다.

29. [출제 의도] 접두사의 의미상 용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한-’이 접두사로 쓰일 경우 세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먼저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일 경우인데 ‘한격성/한길/한시름/한고비/한겨레/한가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로 ‘한가운데/한여름/한낮/한밤중/한복판/한잠’ 등이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한해/한마을/한집안/한자리’ 등과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30~34] 양귀자, 「방울새」

30. [출제 의도] 공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의하면 ‘동물원’은 강제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을 감금해 두는 사회적 공간을 상징한다. 이로 볼 때, 조류원의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은 강제적으로 사회와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존재를 의미한다.

[오답풀이] ㉔ <보기>와 관련지어 본다면, ‘방울새’는 주인공의 차원, 주인공 가족의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편이 ‘악취, 쓰레기, 시궁창’을 싫어했다는 진술,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라는 주인공의 말, 아이의 말을 ‘아빠가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말로 들은 주인공의 착각, ‘이편에야말로 헛손질과 얼룩진 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등의 구절로 보아, ‘방울새’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㉕ <보기>에 근거하면 이 글의 ‘조류원’은 ‘간힘’과 구속, 억압의 공간이다. 남편과 아버지의 부채를, 그로 인한 아픔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곧 ‘풀림’, 자유의 회복을 소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출제 의도] 서술상의 주요 특징과, 그로 인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경로는 단순하다. 조류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처럼 단순한 공간 이동 경로를 보이지만, 서술의 대부분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관찰과 회상, 사색과 상념으로 채워져 있다.

[오답풀이] ㉔, ㉕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내일 모레쯤 남편을 찾아갈 것이고, 이제는 ‘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헛손질과 얼룩진 벽만 바라보고’ 있었던 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대화가 거의 없는 서술의 의미를 풀 수 있는 열쇠로 볼 수 있다. ‘노래를 부르지 않는 방울새’의 모습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방울새의 단혀진 입을 대신하여 노래를 부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은 ‘입을 열어 모음과 자음을 발음하려’ 한다. ‘한 번만 부리를 벌려 방울 소리를 내려고’ 한다.

32. [출제 의도] 서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표현이 가지는 효과를,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이 글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명사형 종결과 평서형 종결이 교차하고 있고, 문장과 문장을 ‘쫄로롱 방울새야’라는 노랫말이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리듬감 있는 서술은 의미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상념에 잠겨 있는 주인공의 모습과 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무거움’과 ‘가벼움’으로 대비되어 있다. 그리고 ‘허둥거림’, ‘눈꺼풀의 떨림’ 등의 신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의 미묘한 내면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시로 이 부분을 대체하면 이러한 맛은 사라지게 된다.

33.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미지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미풍의 보리밭 이랑’은 ‘죽은 나뭇가지’ 등과 대비된다. 전자는 자유롭게 비상하는 ‘바깥세상’에, 후자는 새들이 갇혀 있는 억압과 구속의 공간에 연결된다.

34. [출제 의도] 표현에 담긴 발상과 의미를 고려하여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노래’를 중심으로 ‘방울새’와 ‘날갯이’ 대비되고 있다. 여기서 ‘노래’는 본질적인 것, 의미 있는 것 등의 의미로 추상화할 수 있다. ㉕의 경우도 이러한 발상에 근거하여 ‘알알한 보석 박힌 물이랑’이 ‘갈매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5~39]

35. [출제 의도] 집필 의도와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태양의 빛이 지구의 물체들을 데우는 현상의 과학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이를 위해 열이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에너지라는 것과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매질이 없이도 전파해 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㉔ 맥스웰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어떤 연구와 실험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 의도]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태양’에서 나온 ‘전자기파’가 물체에 전달되어 ‘입자들의 운동’을 일으킨다. 즉, ‘태양’은 ‘전자기파’를 내보내는 주체이고, ‘물질의 운동’은 그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현상이며, ‘전자기파’는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㉑에서 ‘현우’는 ‘말’을 던진 주체이고, 지수의 마음속에 생긴 ‘슬픔’은 그 영향을 받아 일어난 현상이며, ‘말’은 그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㉕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는 그 과정이 계속 순환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태양’과 ‘전자기파’, ‘입자들의 운동’은 그러한 순환 과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계가 다르다.

37. [출제 의도] 외부 정보와 결합하여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4문단에는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맥스웰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과거의 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38.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활용한 설명이 적합한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소개된 자석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 그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이 철심에 유도되도록 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전류에서 자기장이 형성됨을 확인한 앙페르의 실험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전류를 흘리면 자성이 강한 자석이 되는 원동형으로 감아서 만든 코일, 즉 '솔레노이드'를 응용한 것이다.

39.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소리도 파동이긴 하지만, 빛과는 달리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이라는 4문단의 설명 내용으로 미루어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질이 없어도 먼 거리에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0~43]

40. [출제 의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다른 명제에 적용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광고에 쓰이는 언어가 갖는 특성, 즉 설득 및 호소의 기능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광고에 쓰이는 언어는 그 목적(수용자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함)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설득적 장치들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④는 언어의 표현과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잘 드러내 주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광고에 쓰이는 언어의 이러한 특성과 가장 밀접하다.

41. [출제 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IDMA라는 광고 문안의 기본적인 조건에 맞게 광고 문안을 제작해야 하는데, ⑤는 'A 행동'이 잘못 적용되어 있다. 여기서의 '행동'은 ㉠ 바로 뒤의 진술에서 '상품 구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⑤는 구매 이후의 행동에 적용되는 구상이다.

42. [출제 의도] 유사한 표현 방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의 설명을 볼 때 ㉡에 드러난 특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사 '사이[간(間)]'이면서 동시에 음료인 '사이다'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이다. '사이다'는 '사이(명사)+다(서술격 조사의 어미)'이면서 동시에 '사이다'(하나의 명사로서 음료명)라는 점에서 동음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역시 '나는'이 '나(대명사)+는(조사)'이면서 동시에 '날아가는[flyng]'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활용한 광고 문안이다.

43. [출제 의도] 주어진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나 <보기>의 자료를 보건대 ①의 의문문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꾸지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만약 부하 직원이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대답했다면 그것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44~48] 작자 미상, 「운영전」

44. [출제 의도]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장면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김 진사는 대군이 부른 잔치에서 '첩'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손님들이 술에 취해 누워 있을 때 벽을 통해 '첩'이 던져주는 편지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손님

들이 돌아간 후 김 진사가 '첩'을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 의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김 진사는 '첩'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가슴을 태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노심초사(勞心焦思)이다.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이다. ②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며, ③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④는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함, ⑤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46. [출제 의도] 제시한 구절의 적절한 근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김 진사의 슬픔은 사랑하는 '첩'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소식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무녀의 의심'은 이와 관련이 없다.

47. [출제 의도] 등장인물의 심정을 사건의 내용과 적절하게 대응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김 진사가 '첩'에게 편지를 전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첩'을 몹시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무녀의 유혹을 거부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48. [출제 의도] 등장인물의 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가 김 진사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은 김 진사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다. 즉 '물'은 입에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9~52]

49. [출제 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문단에서 '장르화'라는 용어의 유래를 밝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후, 2문단에서 풍속화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3, 4문단에서 대상의 미적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장르화의 의의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해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0. [출제 의도]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이 유사한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은 역사화 이외의 장르에 해당하는 그림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비해 ⑤는 역사화 이외의 장르에 해당하는 그림 중에서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제외한 그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영역이 축소된 경우는 ①의 '얼굴'이다.

51. [출제 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아무 죄도 없는 개에게 옮겨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실시조이므로, ㉡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52.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문단으로 볼 때, <보기>의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했다는 점에서 장르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르화의 미술사적 가치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삶의 의미를 삶 그 자체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장르화의 미술사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⑤의 경우, '안정감을 주는 구도를 확립했다는 점'을 미술사적 가치가 큰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 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53~56] 오태석, 「부자유친(父子有親)」

53. [출제 의도] 회곡과 그 원작을 대비하여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고 보소. 자네하고 자식들은 예스럽고 나만 병이 이리하여 어디 살게 두겠는가."와 같은 대사를 볼 때 세자는 아내인 홍씨에 대해 원망기 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 [출제 의도] 작품을 보고 일으킨 반응이 적절한지 묻는 문제이다.

"세자보다 세손을 보전함이 먼저 일이라 과히 서운해 하지는 마시오."라는 대사로 보아 생모는 세자의 죽음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아들의 재생을 갈구하는 심정은 추리해 내기 어렵다. 여기서 생모가 '검은 우산'을 쓰고 '검은색의 종 모양'으로서 있는 것은 뒤에 이어질 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불길한 분위기를 암시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55. [출제 의도] 회곡을 바탕으로 연극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이 맞는지 묻는 문제이다.

영조는 세자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어서 되시고 나가거라~그 자리서 베리라.", "너 별군직은 ~ 처단하라.", "뗏장을 덮어라."와 같은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하들을 대할 때도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6. [출제 의도] 특정한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 의미를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의 '어찌하겠소'는 세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영조의 의지에 대해 저항할 방법이 없음을 느끼고 체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57~60]

57. [출제 의도]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물질의 원자에서 빛이 방출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도출된 빛 에너지가 레이저광선이라는 내용은 이후 (다)에 진술되어 있으며, (나)에는 레이저광선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58. [출제 의도] 정보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바깥쪽 에너지 준위로 올라간다고 하였고, (다)에서는 빛을 쬐어 루비 전자들을 들뜨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의 '섬광전구'는 전자를 들뜨게 하는 기능, 즉 전자가 원래보다 높은 준위로 올라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③ 전자가 들뜬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은 루비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59. [출제 의도] 한자어를 고유어에 제대로 대응시킬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유'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전자가 보유하는 에너지'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이끌어내다'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유도하다', '유인하다' 등이다.

60. [출제 의도] 반응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따르면, 레이저 장치를 발명한 메이먼에게 레이저의 개념을 제공한 사람은 타운스이고, 타운스는 레이저의 개념을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립하였다. 레이저 장치는 전자의 방사와 생성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